

룻 Ruth

에스텔 Esther

유딧 Judith

차 례

1	룻기	3
2	에스델	13
3	유딧	41



그림 1: Ruth Gleaning. James Tissot (1896)

룻기

[룻과 나오미]

1 **1**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 1
다.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시골에 가서 목불 2
여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2
엘리멜렉이며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마흘론과 길론이었는데, 그들은 3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집안 사람들이었다. 모압 시골에 가서 4
얼마 동안 지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3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4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룻이었다. 거기에서 십 년쯤 살다가, ◦마흐 5
론과 길론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나오미는 남편을 여윈데다 6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다. ◦그 무렵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어 6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모압 시골에 들려 왔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7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시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 가기로 하였다. ◦나 7
오미는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살던 고장을 떠나 유다 지방을 향하여 길을 8
떠나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절으로 돌아들 가라고 하며 이렇게 8
말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나에게 그토록 고맙게 해 주었으니, 9
야훼께서도 것처럼 너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 둘 다 새 남 9
편을 맞아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10
끌어 안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안 됩니다. 저희는 10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겨레의 품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너희는 돌아 11
가야 한다, 애들아. 어찌자고 나를 따라 가겠다고 하느냐?” 하며 나오미는 11
며느리들을 타일렀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자식이라도 있는 줄 12
아느냐? ◦악아, 어서 돌아들 가거라. 나는 이렇게 늙어 이젠 재혼할 수도 12

[㉠]구교에서는 ‘판관’, 신교에서는 ‘사사’라고 불러 왔음

없는 몸이다. 나에게 무슨 희망이 더 있겠느냐? 오늘 밤에라도 내가 남편을 맞아 자식을 낳는다 하자.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야 없지 않겠느냐?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작정이냐? 악아, 그건 안 될 말이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 다오. 나는 이처럼 야훼께 얻어 맞은 신세란다.”

14 ¶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겨례에게로 돌아 갔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15 ¶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제 겨례와 제 신에게
16 돌아 갔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 가거라.”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 두고 혼자 돌아 가라고 너무 성화하시지 마십시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례가 제 겨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17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 내지 못합니다.”

18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더 할 말이 없었다.

19 ¶ 그리하여 둘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 서는 것을 보고 아낙네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20 하며 떠들썩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사따이신께서 나에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

㉠전능하신 이

주셨다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나 불러 주세요.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건만,

21

야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 오게 하셨다오.

그런데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시오?

야훼께서는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셨다오.

사따이신께서는 이렇듯이 나에게 불행을 안겨 주셨다오.”

¶ 이렇게 나옴이는 모압 시골을 떠나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²² 돌아 온 것이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를 거둬 들일 무렵이었다.

[룻이 밭에서 보아즈를 만나다]

2 ¶ 나옴이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¹ 일가로서 유력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라 했다.

¶ 하루는 모압 여자 룻이 나옴이에게 청했다. “저를 밭에 나가게 해 ² 주세요. 행여 무던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의 뒤를 따르며 이삭이라도 주워 오고 싶어요.” 나옴이가 룻에게 허락을 내렸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 ³ 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일가인 보아즈의 것이었다. ◦때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야 ⁴ 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하며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일꾼들이 대답했다. ◦보아즈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한 머슴에게 물었다. “저 젊은 ⁵ 여자는 뉘 덕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던 머슴이 대답했다. “저 젊은 여 ⁶ 자는 나옴이가 함께 모압 시골에서 돌아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이 ⁷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줍게 해 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 ‘나의 귀염둥이’(나옴이)에서 ‘쓰라림’(마라)으로 이름이 바뀐다

8 ¶ 보아즈가 룻에게 말했다. “악아, 내 말이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우러 갈 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
9 과 어울려 다녀라. ◦추수하고 있는 밭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이 아낙네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워라. 머슴들이 너를 성가시게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 두마. 목이 마르거든 머슴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둔 물이 있으니,
10 가서 마셔라.” ◦그러자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귀엽게 보아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십니까? 저는 한낱 이국 여
11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아즈가 말했다. “나는 다 들었다. 네가 남편
이 세상을 뜬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었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12 떠나 낯선 이 백성에게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네가 그렇게도 가룩하게
행하였는데, 어찌 야훼께서 갚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하
느님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 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
13 주실 것이다.” ◦룻은 “부디 저를 귀엽게 보아 주십시오. 저는 덕의 여느
여종만도 못한 몸인데도 이렇게 다정스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군요.”
하며 고마와했다.

14 ¶ 식사 때가 되어 보아즈가 룻에게 권했다. “이리 와 빵을 떼어 이
시큼한 술에 찍어 먹어라.” 그리하여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옆에 앉았다.
15 보아즈는 룻에게 밀청대를 배불리 먹고도 남은 만큼 집어 주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는데, 보아즈가 머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가 보릿단 사이로 돌아 다니며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16 ◦숫제 보릿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줍더라도
17 야단치지 말라.” ◦룻이 저녁 때까지 주운 이삭을 털어 보니 보리가 한 에바
18 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메고 마을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나서,
19 배불리 먹고 남겨 온 음식도 꺼내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어
디에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에게 이렇게도 마음을
써 주신 그분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겠느냐?” 룻이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 주인은 보아즈라고 하더군요.” 하며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밝히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은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고맙게 대하시는구나. 그분이 야훼께 복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그분은 우리와는 가까운 일가이다. 우리를 떠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즈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네 집 아낙네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도록 하였다고 말하니 ◦나오미는 “악아, 네가 그 댁 아낙네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참 잘 되었다.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되었구나.” 하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 이리하여 룻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즈 집안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밤을 타서 보아즈와 가까워지다]

3 ㉢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악아, 이젠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지 않느냐? ◦너는 보아즈 댁 아낙네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그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와는 친척이다. 바로 오늘 밤 그분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장옷을 입고 그 댁 타작 마당에 내려 가 보아라.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는 눈치채이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 알아 두었다가 살그머니 가서 그 발치끼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그분이 일러 줄 것이다.”

㉣ “어머님 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하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 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리가리 옆에 가서 누웠다. ◦보아즈는 한 밤중에 한기를 느껴 몸을 웅크리다가 발치끼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 레위기 25:23-28; 신명기 25:5-10을 보라

- 9 알고 ○“너는 웬 여자냐?” 하고 물었다. “비녀는 룻입니다.” 하고 룻이 대답했다. “어르신네께서는 이 몸을 맡아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10 저의 몸을 덮어 주십시오.” ○“악아, 야훼께 복을 받아라.” 하고 보아즈는 말했다. “너는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 감직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효성을 다하니, 이것은 지난날의 효성보다도 더 가룩하구나.
11 ○악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 주마. 네가 굳센 여자라는 것은 이 성 안에 사는 내 겨레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12 ○너를 맡아 줄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한테는 나보다 더
13 가까운 친척이 또 있다. ○이 밤은 여기서 지내거라. 내일 아침에 그가 너를 맡겠다고 나서면, 좋다, 그가 너를 맡을 것이다. 만일 그가 싫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맡아 주겠다. 날이 썰 때까지 여기에서 쉬어라.”
14 ○이리하여 룻은 날이 새기까지 그의 발치곤훤 누워 있다가, 여자가 타작 마당에 왔었다는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보아즈의 말을 따라 서로
15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즈는 룻이 쓰고 있는 장옷을 벌리라고 한 다음 룻이 장옷을 벌리자 보리 여섯 뒷박을 퍼 담아 지
16 워 주었다. 룻이 마을로 돌아 와, ○시어머니에게로 오자 시어머니는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다. 룻은 그가 자기에게 해 준 일을 다 고했다. ○“시어머니께 빈손으로 돌아 가셔야 되겠느냐고 하시면서 보리를 여섯 뒷박이나
17 주시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 분이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 짓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 보라고 하였다.

[룻이 보아즈와 결혼하다]

- 1 **4** ¶ 보아즈가 성문곤훤 올라 가 앉아 있는데, 마침 자기가 말하던 그 친척이 지나갔다.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나.” 하며 보아즈가 그를
2 부르자, 그가 발길을 돌려 와서 앉았다. ○보아즈는 마을 장로들 가운데서 열 사람을 불러,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권하였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보아즈가 그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의 동기 엘리멜렉의 소 3
유지가 있지 않소?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시골에서 돌아 와서 그 땅 권리를
팔려고 내놓았소. ◦이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 두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4
말이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과 내 겨레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①그 땅을 도로 사서 가질 생각이 있으면 도로 사서 가지시구료.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해 주시오. 내가 알아야겠소. 그것을 도로
사서 가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당신 다음은 나인이 하오.” “내가 도로
사서 가지겠소.” 하고 그가 대답하자, ◦보아즈가 다짐하였다. “나오미에 5
게서 밭을 넘겨 받는 날 당신은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하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 주어야 하
오.” ◦그러자 그 친척은 “그랬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를 보게 되겠군. 그럴 6
수는 없소.” 하면서 그 땅을 도로 사서 갖지 않겠다고 하였다. “내가 사서
가질 것이지만, 당신이나 사서 가지시구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소.”

㉑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도로 사서 가지는 의무를 남에게 넘겨 7
줄 경우에는 신 한 짝을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을
증거물로 삼고 매듭을 지었던 것이다. ◦그 친척도 “당신이 차지하시오.” 8
하면서 신 한 짝을 벗어 보아즈에게 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장로들과 9
온 겨레에게 말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길론과 마흘론에게 팔렸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 10
나는 마흘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까지도 유산과 함께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 주어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남아 이 고장 성문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문께 있던 11
온 백성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장로들이 말했다. “야훼께서
그대 집에 들어 오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문을 일으킨 두 여인

①그 땅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음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대가 에브라다에서 권세를
 12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휘날리기를 빌며, ◦또한 야훼께서 이 젊은
 여인의 몸에서 후손을 일으키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기원한다.”

13 ¶ 이렇게 보아즈는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한 자리에 들었다. 야훼
 14 께서 점지해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여
 말했다.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 가게 해 주셨으니 야훼
 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림을 받게 되
 15 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 준 아들,
 아들 일곱보다 더한 며느리가 낳아 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
 16 맛을 되돌려 주고 노후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17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며 그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계보]

18 ¶ 베레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19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나흐손은 살몬을, ◦살몬은
 20 보아즈를, 보아즈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21
 22



그림 2: Boaz and Ruth. Rembrandt (1643)



그림 3: Esther before Ahasuerus. Tintoretto (1547 ca.)

에스텔

[모르드개의 꿈]

11 ¶ 아하스에로스 대왕 제이넨 니산월 초하룻날 베냐민 지파에 1 (2)
속하는 모르드개가 꿈을 꾸었는데, 그는 야이르의 아들이며 야 1 (3)
이르는 시므이의 아들이며 시므이는 키스의 아들이었다. ◦ 모르드개는 1 (4)
수사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 그는 1 (4)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고니야를 위시하여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 그가 꾸은 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울부짖는 소리와 대소동, 1 (5)
뇌성과 지진으로 지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 그 때 두 마리 커다란 1 (6)
용이 다가서더니 금시라도 서로 싸울 기세를 보이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백성을 치려고 전쟁 1 (7)
준비를 하였다. 어둡고 음산한 날이 왔던 것이다. ◦ 그 날 온 땅은 고통과 1 (8)
번민과 불안과 대혼란으로 뒤덮였다. ◦ 의로운 백성은 자기들에게 닥쳐 1 (9)
올 재앙을 눈앞에 보고 겁에 질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 그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에서, 마치 작은 샘에서 1 (10)
물이 흘러나오듯이 큰 강이 생겨나 물이 넘쳐흘렀다. ◦ 그러자 태양이 1 (11)
뜨고 날이 밝아지더니 그 비천한 백성이 높여져 힘센 자들을 집어삼켰다.

¶ 모르드개는 꿈에서 깨어나, 자기가 꾸은 꿈과 그 속에 나타난 하느님 1 (12)
의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며 온종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왕을 해치려는 음모]

12 ¶ 모르드개는 왕궁을 지키는 어전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 1 (1)
과 함께 궁에서 살고 있었다. ◦ 그 때 그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미 1 (2)
고 있었는데 모르드개는 이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그들이 아하스에로스

-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 (3) 1 ◦ 왕은 그 두 내시를 심문하게 하여 자백을 받고는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 (4) 1 ◦ 그리고 나서 왕은 이 사건을 그의 연대기에 기록하게 하였고 모르드개도
- (5) 1 자기대로 그것을 기록하여 두었다. ◦ 그 후 왕은 모르드개에게 궁 안의
- (6) 1 벼슬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어 그를 치하하였다. ◦ 그러나 아각인 함다
다의 아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 두 어전 내시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모르드개를 해칠 생각을 품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 1 [㉠]**1** [㉡]아하스에로스 시대의 일이었다. 아하스에로스는 인도에서
- 2 **1**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백 이십 칠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아하스
- 3 에로스는 수도 수사성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째 되던
- 4 해에, 큰 잔치를 베풀고 고관대작을 비롯하여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군과
- 5 귀족과 각 지방 수령들을 초대하였다. ◦이리하여 왕은 백 팔십 일이라는
- 6 오랜 시일에 걸쳐 왕실의 거창한 부귀와 눈부신 영화를 자랑하였다. ◦이
- 7 기간이 끝나자 왕은 다시 궁궐 안뜰 정원에다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 8 모든 수사 성민을 가리지 않고 초대하였다. ◦정원에는 하얀 실과 자줏빛
- 9 털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었다. 그 휘장은 흰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 고리에
- 모시실과 붉은 털실로 꼰 끈으로 매어져 있었고, 반암석과 흰 대리석과
- 조개껍질과 갖가지 보석들을 박아 넣은 바닥에는 금으로 만든 평상들이
- 마련되어 있었다.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술 잔이 나왔고, 왕이 내리는
- 술은 한이 없었다. ◦그러나 술을 마셔도 법도를 따라 억지로 마시게 하는
- 일은 없도록 하라는 왕의 분부가 있어 저마다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하였다.
- 9 ◦한편 와스디 왕후도 아하스에로스 왕궁에다 잔치를 베풀고 부인들을

[㉠]그리스 번역에는 1:1 앞에 11:2-12:6 (불가타에 따른 절수 구분)이 붙어 있음 [㉡]페르시아어로는 크사야르사,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 부름.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

초대하였다. ○칠 일째 되는 날, 왕은 취흥이 돌아 자기를 모시는 일곱 내시 10
 므후반, 비즈다, 하르보나, 비그다, 아박다, 제달,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11
 왕후를 화관으로 단장시켜 모셔 와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고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12
 왕후는 내시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나오지 않았다. 왕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 왕은 법에 밝은 학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고 물 13
 었다. 이런 일은 법학자와 법관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페르시아와 메대 사람으로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대신 일곱이 있었는데, 14
 그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르싯, 메레스, 마르스나, 므무간이
 었다. 그들은 높은 벼슬 자리에 앉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내시들을 시켜 내린 분부를 와스디 왕후가 15
 거역했으니, 법대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므무간이 앞으로 16
 나서며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
 른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에로스 왕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
 에게도 못할 일을 한 셈입니다. ○왕후의 일은 틀림없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17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녀자들은 와스디 왕후가 임금님의 부르
 심을 받고도 어전에 나타나지 않았더라고 하면서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왕후의 일은 오늘 당장 페르시아와 메대의 고관 부인들의 귀에 18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내들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19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다시는 와스디가 어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령에 써 넣어 결코
 고치지 못하게 하시고 왕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분에게 물려주십시오.
 ○이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공포되면, 모든 부녀자들은 위 아래 20
 없이 남편을 공대할 것입니다.” ○이 말이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21

- 22 왕은 므무간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정은 마땅히 남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칙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말로 써서 전국에 돌렸다.

[에스델이 왕후가 되다]

- 1 **2** ¶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 아하스에로스왕은 노여움이 가라앉으
면서 와스디 생각이 났다. 그리고, 와스디에게 내린 처단이 마음에
2 걸렸다. ◦시종들이 그 낌새를 알아 채고 왕에게 말했다. “이 나라 각 지방
3 에 간선관을 두시어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사성에 모아 들이십시오.
4 궁녀들을 맡아 보는 내시 헤개에게 맡기어 몸치장을 시키신 다음 ◦눈에
드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까 합니다.” 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 5 ¶ 그 때 수사성에는 모르드개라는 한 유다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이르의 아들로써,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6 키스였다. ◦모르드개는 유다 왕 여고니야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7 사로잡혀 올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잡혀 온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부모
없는 사촌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에스델이라고도 하고 ㉡하다
사라고도 했다. 에스델은 몸매도 아름다웠고 용모도 단정하였다. 그는
양친을 여윈 뒤 모르드개 양녀로 들어가 있었다.
- 8 ¶ 어명이 공포되자 많은 아가씨들이 뿔히어 수사성에 올라 와 궁녀
들을 맡아 보는 헤개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궁궐에 불리어 와서 헤개에
9 게 맡겨진 아가씨들 가운데 에스델도 끼어 있었다. ◦이 아가씨는 유난히
헤개의 눈에 들어 그의 꿈을 받게 되었다. 헤개는 곧 몸치장에 쓰이는
것들과 음식을 주며 가장 좋은 궁에서 지내게 하고, 궁궐에서 시녀 일곱을
10 골라 그를 시종들게 하였다. ◦그런데 에스델은 모르드개가 일러 준 대로
11 자기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모르드개는

㉠에스델의 이름은 모르드개(말둑)와 같이 바빌론 이름 <이쉬탈>에서 나온 것인 듯 ㉡하
다사는 히브리 이름

에스델의 일이 궁금하여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아가씨들은 12
 열 두 달 동안 몸을 다듬고 나서야 차례로 아하스에로스왕 앞에 나가게
 되어 있었다. 여섯 달 동안 몰약으로 몸을 다듬고 나머지 여섯 달은 부인용
 향수와 화장수로 몸을 닦아야 했다. ○아가씨들이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 갈 13
 때면, 몸치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 ○아가씨들은 14
 하나씩 저녁에 들어 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후궁들을 돌보는 내시 사아스
 가즈가 관리하는 다른 궁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왕이 그를 특별히
 좋아하여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그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 오빠 모르드개의 양녀가 된 에스델 15
 의 차례가 왔다. 에스델은 궁녀를 맡아 보는 내시 헤개가 정해 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델은 누가 보든지 아리따웠다.
 ○에스델이 어전에 불러 들어 간 것은 아하스에로스 칠년 시월, 곧 데벳월이 16
 었다. ○왕은 다른 어느 여자보다도 에스델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하 17
 여 에스델은 모든 처녀를 물리치고 왕의 꿈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왕은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 그리고 왕은 고관 대작을 모두 초대하여 에스델 왕비 대관식을 크게 18
 베풀고 전국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는 한편 선물을 내렸다.

[하만이 모르드개에게 앙심을 품다]

¶ 처녀들을 또다시 모집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모르드개는 궁궐의 19
 대문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에스델은 여전히 모르드개가 일러 준 대로 20
 자기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모르드개의 슬하에 있을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르드개가 궁궐 21
 대문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마침 수문장이었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둘이
 왕에게 불만을 품고 암살을 꾀하고 있었다. ○모르드개가 마침 이 낚새를 22
 알아 채고 에스델 왕비에게 고해 바쳤다. 왕비는 그 사실을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다.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람임이 드러나 두 사람은 23

교수형을 받았다. 이 일이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 ¹ **3** ¶ 이런 일이 있은 뒤였다. 아하스에로스왕은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
² 들 하만을 높이 들어 다른 대신들 윗자리에 앉혔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신하들은 모두 왕명을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³ 되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하지 않았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다른 신하들은 “자네는 왜 어명을 거스르는가?”
⁴ 하며 ◦날마다 충고를 하였으나 모르드개가 끝내 듣지 않자 이를 하만에게
 고하였다. 모르드개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는
⁵ 심산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정말로 자기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⁶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는 몹시 화가 났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어느 민
 족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는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아하스에로스 왕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함께 전멸시키기로 하고 그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전멸될 위기를 맞다]

- ⁷ ¶ 아하스에로스왕 십이 년 정월, 곧 나산월이었다. 사람들이 유대인
 을 해치울 날을 정하려고 하만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니, 십 이월 곧 아달
⁸ 월 ⑦십 삼일이 나왔다. 주사위를 그 곳 말로는 불이라고 하였다. ◦날이
 정해지자 하만이 아하스에로스왕 앞에 나아가 말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도 달라서 임금님의 법마저도 지키지
⁹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
 들을 멸하라는 영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신은 은화 일만
 달란트를 달아서 재산 관리인에게 넘겨 내탕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¹⁰ ⑧◦왕은 인장반지를 뽑아, 유대인을 박해하려는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¹¹ 하만에게 주며 ◦일렀다. “돈은 그대가 차지하여라. 그리고 그 민족은 그대

⑦그리스 번역을 따랐음 (3:13을 보라.) ⑧유대인에게서 몰수한 돈을 바치겠다는 뜻인
 듯함. (11절을 보라.)

손에 넘길 터이니 좋도록 처리하여라.”

¶ 정월 십 삼일에 하만은 왕의 비서관들을 불러 왕의 제후들과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 수령들에게 보내는 칙서를 받아 쓰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아하스에로스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봉한 다음 ◦보발꾼을 시켜 지방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십 이월, 곧 아달월 십 삼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 버리고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13 ^㉑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왕 아하스에로스가 인도에 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백이십칠 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장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수많은 국민들을 통치하며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는 결코 오만스럽게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절도를 지키며 관대하게 다스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파탄 없는 평온한 생활을 영원히 보전하여 주며,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문명의 혜택과 방방곡곡 어디에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백성이 열망하는 평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나의 자문관들과 협의하였다.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기가 우리 중에 뛰어났고 그의 꾸준한 정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이 증명된 사람이며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가는 사람이다. ◦그 하만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즉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별난 이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제도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과

^㉑그리스 번역에서는 13절과 14절 사이에 13:1-7 (불가타 절수)가 삽입됨.

같이 명령한다. 공직의 제일인자이며 나에게는 제이의 아버지인 하만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지정한 자들은 금년 아달월 즉 십이월 십사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7)13 모조리 없애버리라. ◦ 그리하여 어제든 오늘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단 하루에 힘으로 지옥에 몰아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완전히 누리도록 하라.”

14 **3** ◦ 그리고 각 지방에 법령으로 선포될 이 문서의 사본을 모든 민족에게
15 공포하여 그 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 보발꾼들은 왕명을 받고 급히 흩어져 갔다. 이 법령은 수사성에도 나붙어 온 수사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차려 먹고 있었다.

[모르드개가 에스델과 내통하다]

1 **4** ¶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2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거리를 지나 ◦ 대궐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베옷을 입고는 대궐 문으로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3 ◦ 어명이 법령으로 공포된 각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은 모두 초상을 당한 때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낮이나 밤이나 잣더미에 베옷을 깔고 지냈다.
4 ¶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델에게 와서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왕후는 몹시 걱정이 되어 모르드개에게 옷을 내어 보내며 그 베옷을
5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 에스델은 왕이 지명해 준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나가 곡절을 알아 오라고 하였다.
6 ◦ 하닥이 대궐문 앞 광장에 서 있는 모르드개를 찾아 가자 ◦ 모르드개는 자
7 기 몸에 닥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탕고에
8 거둬 들이겠다고 장담했는가를 들려 주었다. ◦ 그리고, 유다인을 학살하라고 수사성에 내붙인 포고문 한 장을 주면서, 에스델에게 보이고 왕 앞에 나아가 겨레를 살려 달라고 애원해 보도록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5 ㉑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왕후께서 내 손에서 자라던 그 비천 8 (1-3)
 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시오. 왕국의 제이의 인물인 하만이
 우리를 몰살시키라고 왕에게 탄원하였으니, 주님께 기도드리시고 왕에게
 간청하여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오.”

4 ㉒ 하답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델에게 전하였다. 9
 10 에스델은 하답을 다시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11
 “왕 11
 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데, 궁궐 앞뜰로 어전에 들어 갔다가는 남자든지 여
 자든지 사형을 받는 법입니다. 왕께서 금지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은 물론, 전국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를 부르지 아니하신 지 달포나
 되었습시다.

㉓ 모르드개는 그가 전하는 에스델의 이 말을 듣고 12
 13 에스델에게 다시
 이렇게 이르게 하였다.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만이 유대인 가운데 홀로
 목숨을 부지하리라 생각 마시오. 14
 이런 때에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대인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가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15
 16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빨리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생각하시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단식 기도를 올려 주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단식 기
 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뵈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㉔ 모르드개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물러나 에스델의 말대로 하였다. 17

㉑ 그리스 번역에서는 여기에 두 절이 삽입됨. ㉒ 그리스 번역에서는 여기에 모르드
 개의 기도와 에스델의 기도가 삽입됨.

[모르드개의 기도]

- (8)17 **13** ¶ 모르드개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 (9)17 “주님, 주님, 온 누리의 주인이신 임금님,
만물이 당신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 (10)17 진정,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시며,
창공 아래 모든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 (11)17 당신은 온 누리의 주인이십니다.
- (12)17 그리고 주님, 당신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오만불손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내가 무례해서나, 오만해서나
혹은 허영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 (13)17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 (14)17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느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 하느님, 17(15)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임금님,
당신 백성을 살피주소서.
원수들은 우리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당신께서 옛날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건져내신, 17(16)

당신의 몫을 저버리지 마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17(17)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찬양하는 입술을 잠잠케 마소서.”

¶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17(18)
다가왔던 것이다.

[에스델의 기도]

14 ¶ 왕후 에스델도 자기에겐 닥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주님께 17(1)
의지하려고 하였다. ◦ 에스델은 화사한 옷을 벗고 슬픈 상복을 17(2)
입었다. 값진 향유 대신에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썼다. 왕후는 자기의
몸을 심하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전에 즐겁고 우아했던 모습이 지금은 형
클어진 머리칼로 어수선하게 되었다. ◦ 에스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17(3)
주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하였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임금님,

-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홀몸,
 당신 외에 아무런 구원자도 나에겐 없습니다.
- (4)17 나의 생명은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 (5)17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 선조들을 뽑으시어,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 (6)17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선조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당신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넘기셨습니다.
- (7)17 우리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 (8)17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쓰라린 노예로 삼고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의 손을 맞잡고 맹세를 했습니다.
- (9)17 당신께서 친히 분부하신 법을 폐기하고
 당신의 백성을 없애버리어
 당신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제단에서 불을 꺼버리며, 당신 성전의
 영광을 짓밟기로 작정하였습니다.
- (10)17 그 대신에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미하게 하고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왕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당신의
 17(11)
 홀을 넘겨주지 마소서.

우리가 멸망하여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자기들이 꾸민 흉계로 망하게 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17(12)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소서.
 모든 신 중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권자시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내가 사자와 맞설 때에
 17(13)
 내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원수와 그 동조자를 멸망케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17(14)

주님 나는 홀몸, 당신뿐이오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17(15)

내가 악인들의 영예를 미워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의 잠자리를 증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아시는 당신은
 17(16)

내가 나의 높은 지위의 상징을 혐오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공석상에 나타날 때에는 할 수 없이 머리 위에 관을 쓰지만
 그것이 더러운 걸레처럼 싫어서, 혼자 있을 때는 벗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인 나는 하만과 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으며
 17(17)

왕의 연석이 기쁘지 않았고
 그들의 제삿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18)17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여,
 당신의 여종인 나는 이 자리에 올라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하고가 아니면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19)17 만물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신 하느님,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나를 공포에서 구하소서.”

[에스델이 어전에 나아가다]

1 **5** ¶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델은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
 이는 대궐 안뜰에 들어 섰다. 마침 왕은 궁궐 문이 마주보이는 용상에
 2 앉아 있다가 ○에스델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하여 손에
 들고 있던 금지팡이를 에스델에게 내밀었다. 에스델이 가까이 다가가서
 지팡이 윗머리에 손을 대었다. ㉠

[왕궁으로 나간 에스델]

(4) 2 **15**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델은 기도를 마치고 상복을 벗고, 호화찬
 (5) 2 란한 옷을 입었다. ○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으로 성장한
 에스델은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께 호소
 (6) 2 하였다. 그리고 왕후는 두 시녀를 데리고 나셨다. ○ 왕후는 한 시녀가 옷
 자락을 받쳐들고 동반하는 가운데, 또 한 시녀에게 우아하게 몸을 기대고
 나왔다. 왕후가 한 시녀에게 나쁜 자태로 몸을 기대었던 것은 그 몸이

㉠공동번역 초판에 “손을 대자”. 외경 부분을 삽입하면서 본문의 흐름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스 번역은 5:1-2 사이사이에
 많은 것을 삽입하여 구성하였음.

너무나 허약해져서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그리고 2 (7)
또 한 시녀가 땅에 끌리는 왕후의 옷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 그 여자는 넘쳐흐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불게 상기되어 있었고 2 (8)
희색이 만면하여 마치 사랑의 꽃이 핀 듯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 여러 개 문을 지나서 왕 앞으로 나갔다. 왕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2 (9)
왕복으로 성장을 하고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마어마하였다.

¶ 왕은 위풍당당한 얼굴을 들어 노기띤 눈으로 왕후를 쳐다보았다. 2 (10)
왕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를 따라온
시녀에게 머리를 기댔다. ◦ 그러나 하느님은 왕의 마음을 변심시키어 그 2 (11)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 왕은 몹시 걱정스러워져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후가 정신차릴 때까지 그를 품안에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
하였다. ◦ “에스텔, 이게 웬일이요? 우리는 서로 남매간이요. 안심하십시오. 2 (12)
◦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내 명령은 평민들에게만 해당되요. ◦가까이 2 (13-14)
오시오.” ◦ 왕은 황금장을 번쩍 들어 에스텔의 목에 대고 껴안으며 “나에게 2 (15)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에스텔은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께서 하느님의 천사 2 (16)
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임금님의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 임금님, 2 (17)
임금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임금님의 얼굴에는 인자하신 정이
흐릅니다.” ◦ 에스텔은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왕은 몹시 2 (18-19)
근심하였고, 그의 모든 시종들은 에스텔을 깨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
기울였다.

5 왕이 물었다. “에스텔 왕후, 웬일이요? 무슨 간청이라도 있소? 이 3
나라 반이라도 주리다.” ◦에스텔이 말했다. “소첩이 오늘 임금님을 4
모시려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 주셨으면 합니
다.” 에스텔의 초청을 받고 ◦왕은 곧 영을 내렸다. “왕후의 소원이니 하만 5

을 곧 들라고 하여라.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델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6 ¶ 술이 한 순배 돈 다음 왕이 에스델에게 물었다. “그래, 왕후의 청이 무엇이요? 무엇이든 들어 줄 터이니 말하시오.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
7 주리다.” ◦그러자 에스델은 이렇게 아뢰었다. “소첩의 간절한 소원을 아
8 뵈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 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만
9 좋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10 다시 한번 와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9 ¶ 그 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오다가, 대궐
10 문간에 이르러 모르드개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11 않는 것을 보았다. 하만은 속이 뒤집혔지만 ◦꼭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
12 과 아내 제레스를 불러 들였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재산도 많고 지식도
13 많은데다가, 왕이 자기를 어느 고관 대작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 주었음을
14 자랑하고 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 뿐인 줄 아는가? 에스델 왕후께서
15 손수 베푸신 잔치에 나 혼자만이 왕과 자리를 같이 했다네. 게다가 내일도
16 왕과 함께 초대받았지. ◦그런데 대궐 문간에서 일보는 모르드개라는 그
17 유다인 녀석만 눈에 띄면 속이 뒤집힌단 말이야! “◦아내 제레스와 친구들
18 이 하만에게 의견을 내어 놓았다. “높이 쉰 자 짜리 기둥을 세우고, 내일
19 아침 왕께 청을 드려 모르드개를 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개운한
20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나가십시오.” 하만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21 곧 기둥을 세우게 하였다.

[모르드개가 영광을 받다]

1 ¶ 그 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실록을 가져다 읽게 하였다.
2 6 ◦그 기록을 읽어 내려 가다가 대궐 수문장으로 있던 두 내시 빅단과
3 테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
4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왕은 그 모르드개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

공을 치하였느냐고 물었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불렀다. 4
 때마침 하만이 궁전 바깥뜰에 들어 섰다. 하만은 자기가 세워 둔 기둥에 모르드개를 달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 막 들어서던 참이었다. ◦시종들이 5
 밖에 하만이 대령하고 있다고 하자 왕은 어서 들게 하라고 하였다. ◦하만 6
 이 들어 서자 왕이 이렇게 물었다.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만은 ‘왕이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밖에 누가 있으랴’ 싶어, ◦이렇게 진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상을 7
 내리고 싶으신 사람이 있으시거든,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의복과 타시는 8
 말을 내어 온 다음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임금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9
 한 대신에게 그 왕복과 말을 맡기시어, 상을 내리시려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 성내 광장을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경마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주신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말대로 곧 시행하여라. 10
 그대는 내 옷과 말을 내어다가 문간에서 일보는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제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해 주도록 하여라.” ◦하만은 11
 하릴없이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말을 끌어 내어 태운 다음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 돌아야 했다. 하만은 경마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은 이같이 해 주신다” 하고 외쳤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12
 대궐 수위실로 돌려 보내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상이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 가, ◦아내 제레스와 측근을 모두 불러 놓고 방금 당한 일을 들려 주 13
 었다. 그이 참모들과 아내 제레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대감은 이제 유다 종자 모르드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생각을 마십시오.”

[하만이 몰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을 모시는 내시들이 와서 에스델이 베풀 14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 1 **7** 그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델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2 되었다. ◦이 두 번째 날에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델에게 물었다.
 “에스델, 어서 소청을 말해 보오. 무엇이든지 들어 주겠소. 진정 소원이라
 3 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 주리다.” ◦왕후 에스델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만일 임금님께서 소청을 귀엽게 보아 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 좋으시다
 면 이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겨레도 살려 주십
 4 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저의 겨레는 다 죽어 멸종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종으로 팔려 간다고만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실 손해는 무엇으로 메우시겠습니까?”
 5 ◦“도대체 그 놈이 누구요? 그런 음모를 꾸민 놈이 지금 어디 있소?” 하고
 6 아하스에로스왕이 캐어 묻자, ◦왕후 에스델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 놓았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에스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하만은 왕과 왕후앞에서 부들부들
 7 떨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안뜰로 나갔다. 틀림
 없이 왕에게서 벼락이 내릴 것을 알고 하만은 왕후 에스델에게 목숨만은
 8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다시 술자리로 돌아 와 보니,
 에스델이 몸을 누이고 있는 평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왕은 “네놈이 내 거처에서, 더구나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왕의 입에서 이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은
 9 수건으로 가리워졌다.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나서서 말하
 였다. “마침 하만의 집에 높이가 쉰 자나 되는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임금을 살려 드린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워 둔 것입니다.” 왕이
 10 말했다. “그 기둥에 이 놈을 달아라.” 어명에 따라,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웠던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제야 왕의 노여움
 이 풀렸다.

[유다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다]

8 ¶ 그 날로 아하스에로스왕은 유다인들을 박해하려던 하만의 집을 1
 에스델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델은 그제야 자기와 모르드개가 어떤 2
 사이인지를 밝혔다. 그리하여 모르드개는 어전에 나오게 되었고, ◦왕은 3
 하만에게서 찾은 인장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맡겼다. 에스델은 하만의 4
 집을 모르드개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에스델은 다시 어전에 나가 5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처치하려고 꾸며 놓은 음모를 거두어 달라고, 6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애원하였다. ◦왕은 에스델에게 금지판을 7
 내어 밀었다. 그제야 에스델은 어전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만일 임 8
 금님께서 좋으시다면, 만이 소첩을 귀엽게 보시어 제 말씀을 윤택게 보시고 9
 소첩을 애중히 여겨 주신다면,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전국 각 10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써서 돌린 칙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 11
 겨례에게 닥쳐 온 이 재난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 친척이 12
 망하는 것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하스에로스왕은 드디어 13
 에스델 왕후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윤허를 내렸다. “나는 유다인을 멸 14
 망시키려고 한 죄값으로 하만을 이미 기둥에 매달아 죽였고, 그의 집을 15
 에스델에게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다인에게 좋을지 그대들 16
 소견을 맡길 터이니,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내 인장반지로 인을 쳐서 17
 돌려라.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을 친 칙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 왕의 비서관들이 곧 소집되었다. 때는 시완월 곧 삼월 이십 삼일이 1
 었다. 비서관들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백 이십 칠 지방에 널리 2
 있는 유다인과 제후들과 총독과 각 지방 수령들 앞으로 보내는 칙서를 3
 모르드개가 불러 주는 대로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옮겨 4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아하스에로스왕의 이름으로 만들고 왕의 5
 인장반지로 인을 친 칙서를 보발꾼들이 왕실 역마를 타고 전달하였다. 6
 ◦왕은 그 칙서에서 각 도시에 널리 사는 유다인들은 정당방위로 한데 뭉쳐 7
 서 자기들을 박해하려는 모든 민족과 각 지방 무장대를 처자까지 몰살하 8
 9
 10
 11

- 12 고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아하스에로스 왕국 안의 모든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 이월 십 삼일, 하루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복권령]

- (1)12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6** “나 아하스에로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백이십 칠 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장관들과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 (2)12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은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많은 영예를
- (3)12 얻으면 점점 더 오만해진다. ◦그들은 나의 백성들을 해치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여 그들의 은인
- (4)12 들을 해치는 음모를 꾸미기에 이른다.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선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하는 말에 우쭐하여, 하느님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도, 그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피할 수
- (5)12 있다고 스스로 장담한다. ◦그래서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에게 국사를 맡기고 그들의 말을 듣다가 죄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구제할 길
- (6)12 없는 불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의 탓할 것 없는 올바른 의도가 악의를 품은 자들의 거짓 이론 때문에
- (7)12 잘못되는 수가 많았다. ◦내가 언급한 옛일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네 앞을 보기만 하면, 가당치 않은 관리들의 해악으로 인하여
- (8)12 갖가지 죄악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만백성이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9)12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정책을 적절하게 개혁하고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언제나 공정한 정신으로 판단해 나가겠다.

[㉠]그리스 번역에는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삽입됨.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좋은 예이다. 그는 12(10)
 페르시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국인일 뿐 아니라 온정이 없어
 나와는 거리가 먼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손님으로 우대하였고
 ◦모든 국민에게 베푸는 우정으로 그를 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를 12(11)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왕 다음가는 자리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배례하게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높은 지위에 12(12)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서 나라와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음모하였다. ◦나아 12(13)
 가서 부당한 잔피와 이론을 펴, 나의 구원자이며 변함없는 은인인 모르드
 개와 닥할 바 없는 나의 왕후 에스델을 그들의 동족과 함께 없애버리라고
 나에게 종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하여 나를 고립무의의 상태에 빠뜨리 12(14)
 고 페르시아 제국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장 가증스러운 악인이 멸망시키려고 하던 유다인들은 죄인들 12(15)
 이 아니며 오히려 법을 가장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들은 위대하시고 살아 계신 하느님이신 지극히 높은 분의 자 12(16)
 녀들이다. 나와 나의 선조들은 바로 이 하느님 덕분에 나라의 끊임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보낸 편지에 12(17)
 적혀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편지를 쓴 자는 만물의 12(18)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내리신 합당한 벌을 받아, 이미 그 일가 권
 속과 함께 수사 성의 성문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나의 이 편지의 사본을 12(19)
 방방곡곡에 게시하여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법을 공공연히 지킬 수
 있게 하라. ◦악인들은 아달월 즉 십이월 십삼일을 공격일로 정하여 유다 12(20)
 인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그 날에 유다인들을 도와주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멸망의 이 날을 당신의 선민들을 위하여 기쁨의 12(21)
 날로 바꾸어놓으셨다. ◦한편, 그대들 유다인들은 성대하게 지내는 축제일 12(22)
 가운데서도 이 날을 특별한 축일로 정하여 갖가지 잔치로써 축하하라.

(23)12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는 이 날이 그대들과 선량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념일이 되고 그대들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기념일이 되게 하라.

(24)12 ◦어떤 도시든지, 나아가 어떤 주든지 이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칼과 불의 무자비한 응징을 받아 폐허가 될 것이며, 그 곳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야수나 새들의 영원한 저주까지 받게 될 것이다.”

13 **8** 이 칙서를 모든 지방에 다 보내어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게 하였다.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 날을 맞아 원수를 갚을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었다. ◦보발꾼들은 왕실 역마를 타고 어명을 전하러 급히 떠났다. 이 칙서는 수사성에도 나붙었다.

15 ¶ 모르드개는 자주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 예복에 큰 금관을 쓰고, 흰 모시와 붉은 옷감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16 그를 맞아 온 수사성은 환성을 올렸다. ◦마침내 유다인들에게는 빛나는 17 영광과 벽찬 기쁨이 찾아 온 것이다. ◦이 어명이 법령으로 선포된 지방이나 도시 어디서나 유다인들은 이 날을 축일로 삼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 뛰었다. 다른 민족들로서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만큼 그들은 유다인들의 위력에 눌렸던 것이다.

[부림절을 지키다]

1 **9** ¶ 마침내 아달월 곧 십 이월 십 삼일이 되었다. 포고된 칙령이 실시 되는 날, 유다인들을 결판내려고 버르던 원수들이 도리어 유다인에게 변을 당할 날이 온 것이다. ◦유다인들은 저희를 해치우려는 원수들을 치려고 아하스에로스 왕국 각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로 모여 들었다. 모든 민족이 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터였으므로, 아무도 대적하지 못 3 하였다. ◦각 지방 수령과 제후와 총독을 비롯하여 어명을 따라 일을 보는 4 관리들은 모두 모르드개가 무서워서 유다인 편을 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르드개는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르게 되어 그 명성이 각 지방에서 자자했다. 그만큼 모르드개의 세력은 날로 커져 갔던 것이다.

¶ 유대인들은 원수를 모조리 칼로 쳐죽이며 닥치는 대로 박살내었다. 5
 ◦유대인들은 수사성에서만도 오백 명을 죽였다. ◦그 가운데는 바르산다 6
 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야, 아리다다, ◦바르마스다, 아리새, 7
 아리대, 와이자다도 끼어 있었는데, ◦이 열은 유대인을 박해하려던 함다다 8
 의 아들 하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죽이면서도 유대인들은 노략질만은 9
 하지 않았다. 10

¶ 수사성에서 살해된 사망자의 수는 그 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11
 ◦“수사성에서만도 유대인들은 적 오백 명에다가 하만의 아들 열을 죽여 12
 없앴으니, 이 나라 다른 지방에서야 어떠했겠소?” 하며 왕은 에스델 왕
 후에게 말하였다. “또 무슨 소청이 있거든 말해 보오. 다 들어 주리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주리다.” ◦에스델은 이렇게 청을 올렸다. “임 13
 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실시한 칙령을
 내일도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기둥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대로 실시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수사성에는 다시 포고 14
 문이 나붙고 하만의 열 아들은 기둥에 매달리게 되었다. ◦수사에 사는 15
 유대인들은 아달월 십 사일에 다시 모여 수사에 있는 적을 삼백 명이나 더
 죽였다. 그러면서도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 그 나라 각 지방에 사는 다른 유대인들도 정당방위로 한데 뭉쳐 16
 원수를 갚았다. 그들의 손에 죽은 원수는 모두 칠만 오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죽이면서도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이 일은 아달월 십 삼일에 17
 일어난 일이었다. 십 사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였다.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은 십 삼일과 십 사일에 모였었기 때문에 십오일에 18
 야 쉬면서 그 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였다. ◦성이 없는 마을에 살던 시골 19
 유대인들도 아달월 십 사일을 축일로 삼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선물을
 주고 받았다. 한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며 이웃들과 선물을

- (1) 교환하는 날은 아달월 십 오일이다. ◦^㉑한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며 이웃들과 선물을 교환하는 날은 아달월 십오일이다.

20 ¶ 모르드개는 이 일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리고 아하스에로스 왕국
21 각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원군을 가리지 않고 전갈을 보내어 ◦해마다
22 아달월 십 사일과 십 오일을 축일로 지키라고 지시하였다. ◦이 달은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 날이 축제일로 바뀐 달이요, 이 날은 유다인들이 원수에게서 풀려 난 날이라, 이 날을 기쁜 잔칫날로 지내며 선물을 주고
23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로 삼으라고 하였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개의 지시를 따라 시작한 이 행사를 계속 지키게 되었다.

24 ¶ 유다인을 박해하려던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인들을 없애 버릴 음모를 꾸미고 불이라는 주사위를 던져 택일까지 했었다.
25 ◦그러나 이 일은 왕 앞에 드러나고야 말았다. 왕은 영을 내려 유다인들을 잡으려고 꾸민 음모를 하만에게 되썩워 하만을 아들들과 함께 기둥에
26 매달게 하였다. ◦^㉒그리하여 이 이들을 불이라는 말을 따서 부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모르드개가 편지로 지시해 둔 일이기도 하지만,
27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대대손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마다 정한 때에 어김없이 이 이들을 축제일로 지키기로
28 하였다. 귀화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 명절은 지방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어느 가문에서나 다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부림절은 유다인에게는 거를 수 없는 날이요 대대로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29 ¶ 아비하일의 딸 에스텔은 왕후로서 부림절에 관한 이 편지를 뒷받
30 침하는 글을 써서 ◦아하스에로스 왕국 백 이십 칠 지방에 널리 사는 모든
31 유다인에게 발송하였다. 걱정없이 마음놓고 살면서 ◦정한 때면 부림절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유다인 모르드개가 제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대대로

^㉑그리스 번역에는 여기에 약간의 덧붙임이 있음. ^㉒26-27절은 모르드개의 편지 내용일 수도 있음.

지키기로 스스로 제정한 대로 슬피 울고 단식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 ◦이 32
 렇게 에스델이 부림절 행사로 제정한 내용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모르드개가 칭송을 듣다]

10 ¶ 아하스에로스왕은 육지와 바다와 섬들에서 조공을 받는 왕 1
 이었다. ◦모르드개는 이런 왕에게 등용되어 권력과 세력을 잡고 2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다 아는 대로 그 자세한 기록은 메대와 페르시
 아 역대왕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 모르드개 위에는 3
 아하스에로스왕 밖에 없다. 그는 제 거래가 잘 되도록 애썼고, 모든 후손의
 복지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기림을 받았고 많은 동포에게
 사랑을 받았다.”

㉠ ¶ 모르드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3 (4)
 일이다. ◦나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하나도 3 (5)
 빠짐없이 실현되었다. ◦조그마한 샘물이 큰 강이 되었던 일과 빛이 비치던 3 (6)
 일, 태양과 넘쳐흐르는 물, 이것들이 모두 실현되었다. 에스델이 바로 그
 강인데, 에스델은 그 왕과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다. ◦두 마리 용은 하만과 3 (7)
 나다. ◦이교국 백성들은 서로 결탁하여 유대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한 3 (8)
 자들이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3 (9)
 사람들이다. 과연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하셨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어떤 백성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행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3 (10)
 운명과 이방인들의 운명을 따로 갈라놓으셨다. ◦이 두 가지 운명은 하느 3 (11)
 님께서 정하신 그 날, 그 시간, 그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유산을 의롭게 3 (12)
 지켜주셨다. ◦하느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은 하느님 3 (13)

㉠그리스 번역에는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붙어 있음.

앞에 모두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며,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손만대에 영원히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이스어 번역본에 대하여]

- (1) **11** ¶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치세 사년에, 도시데우스라는 사람이 스스로 레위족에 속하는 사제라고 하면서 부림 축일에 관한 이 편지를 가져왔다. 그들은 이 편지가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쿠스가 번역한 것이라고 하며 내놓았다.



그림 4: Esther Preparing to Intercede with Assuerus. Rembrandt (1633)



그림 5: Judith with the Head of Holofernes. Cristofano Allori (1613)

유딧

[아시리아와 메대의 전쟁]

1 ¶ 대도시 니느웨에서 아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왕 제십
이 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때에 메대인의 왕 아르박삿은 엑바타나에
서 백성을 다스리며 ○엑바타나 주위에 높이 백 오 척, 두께 칠십 오 척 되는
성을 쌓았는데 거기에 폭 사 척 반, 길이 구 척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그 성문마다 구십 척 나비로 기초를 닦고 거기에 높이 백 오십
척 되는 탑을 세웠다. ○그 성문은 높이가 백 오 척, 나비가 육십 척이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었고 보병대는
대오를 지어서 행진해 나갈 수 있었다.

¶ 그 무렵에 느부갓네살왕이 아르박삿왕에게 싸움을 걸어서 라가오
지방의 대평야에서 싸우게 되었다. ○그래서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들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히다스페스강 가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엘람
사람들의 왕 아룩의 지배하에 있는 평원의 모든 사람들이 아르박삿왕 밑으
로 모여 들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백성들도 켈레우드 사람들과의 싸움에
가담하려고 모여 들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냈다. 페르샤를 비롯하여 길
리기아, 다마스쿠스, 레바논, 안티레바논 등 서쪽 여러 지방, 지중해 연안
지방, ○가르멜, 길르앗, 상부 갈릴래아, 에스드렐론의 대평야, ○사마리아
와 그 지방 도시들과 요르단강 서쪽, 예루살렘, 베다니아, 켈루스, 카데스,
에집트의 강, 다흐반헤스, 라므세스, 고셀, ○타니스, 멍피스, 에디오피아
접경에 이르기까지의 온 에집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이다. ○이 온 지방의 여러 주민들은 모두가 아시리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을 한낱 하나
의 인간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서워 하지 않고 그 사신

12 들에게 치욕을 주어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그래서 이 온 지방 사람들에게
 대한 느부갓네살왕의 노여움은 극도에 달했다. 그는 지중해와 페르샤
 사이에 있는 지방, 즉 길리기 아와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모든 지방, 모압
 지방의 모든 주민, 암몬 사람들, 전 유다와 에집트의 모든 주민들을 한칼
 13 로 무찔러 복수하겠다고 자기 왕위와 왕국을 걸어 맹세하였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왕은 제십 칠 년에 아르박삿왕을 치러 군대를 진격시켜서 일대
 교전을 한 끝에 그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아르박삿왕의 전 군대와 전
 14 기병대와 모든 전차대를 분쇄하였다. ◦왕은 메대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엑바타나까지 진격하여 그 탑들을 빼앗고 시장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15 엑바타나의 영화는 치욕으로 변했다. ◦왕은 아르박삿을 라가오산 속에서
 16 생포하여 창으로 찢어 완전히 없애 버렸다. ◦왕은 자기 군대와 자기에게
 합세했던 여러 민족의 군대를 거느리고 니느웨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자기 군대와 함께 백 이십 일 동안 충분히 휴식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서방제국 토벌]

1 **2** ¶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왕 제십 팔 년 일월 이십 이일 왕은 이미
 2 자기가 맹세한 대로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던 전 지역에 대한 복수를
 3 논의하기 위해서 궁전에 회의를 소집하였다. ◦왕은 모든 신하와 귀족들을
 불러 놓고 비밀회담을 하며 이 전 지역을 송두리째 없애 버릴 뜻을 자기
 4 입으로 명백히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을 없애
 5 버리기로 결의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아시리아의 느부갓네살왕은 자기
 군대 총사령관이며 왕 다음가는 지위에 있는 홀로페르네스를 불러서 다음
 6 과 같이 일렀다. ◦“온 땅의 주인인 대왕의 말을 들으시오. 경은 이 자리를
 7 물러가서 용감무쌍한 보병 십 이만과 기병 일만 이천 기를 거느리고, ◦내
 8 입에서 떨어진 명령을 감히 불복한 자들이 사는 서방의 전 지역을 치러
 가시오. ◦그들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전하시오. 내가 대단히 노하여
 그들에게 진군할 것이며 그들의 온 땅을 나의 군대가 짓밟을 것이며 ◦산골

짜기는 부상자들로 메워질 것이고 흐르는 강은 시체로 메워져 넘쳐 흐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땅 끝으로 쫓아 버리겠소. ◦자 나가 9
 시오. 경은 나보다 먼저 가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시오. 그들이 항복하거든 10
 내가 가서 처벌하는 날까지 붙들어 두시오. ◦경이 점령한 땅에서 경에게 11
 불복하는 자가 있거든 가차없이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시오. ◦나는 내 12
 목숨과 왕권을 걸고 한번 말한 것은 내 손으로 이루고야마오. ◦경은, 경의 13
 상전인 나의 명령을 한 마디도 어기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지체없이
 완수하시오.”

¶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는 어전에서 물리나와 아시리아군의 모든 14
 장성들과 부대장들과 기타 장교들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15
 정예병 십 이만과 활 쏘는 기병대 일만 이천 명을 소집하여 ◦전열을 가다듬 16
 었다. ◦짐을 나르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낙타와 노새와 나귀를 징발시켰고 17
 군량으로는 무수한 양과 소와 염소를 징발하였다. ◦그리고 각 병사가 먹을 18
 양식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국고로부터 많은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갔다.
 ◦그는 느부갓네살왕보다 앞서서 서방의 온 지역을 전차대와 기병대와 19
 정예보병대로 휩쓸려고 자기 전군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이 밖에도 그를 20
 따라 간 잡다한 군대의 수는 메뚜기떼나 땅의 모래알처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 홀로페르네스는 니느웨를 출발한 지 삼 일만에 백티렛의 평야가 21
 까이까지 진군하였다. 그리고 상부 길리기아 북쪽에 있는 산 근처에서
 백티렛을 향하여 진을 쳤다. ◦거기에서 그는 보병대와 기병대와 전차대의 22
 전군을 이끌고 산악지대로 진격하여 ◦푸트와 룿을 짓밟고 라시스 사람들 23
 과 켈레아 남쪽의 사막 근처에 사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 그리고 그는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횡단하 24
 면서 아브로나 계곡에 있는 여러 요새도시를 섬멸하고 마침내 지중해에
 이르렀다. ◦이어서 길리기아 지방을 점령하고 반항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 25

26 버리고 아라비아를 바라보는 야벳의 남쪽 접경까지 진군하였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모조리 포위하고 그들의 천막을 불사른 다음, 가축을
27 약탈하였다. ◦밀 수확이 한창일 때에 그는 다마스쿠스 평야로 내려가
밀밭을 불사르고 소와 양떼를 쏘아 버리고 여러 도시들을 약탈한 다음,
28 전답을 짓밟고 젊은이들을 모두 칼로 찢어 죽였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시돈과 띠로의 해안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수르, 오키나, 얌니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덜덜 떨었다. 아조토와 아스칼론에
사는 사람들도 그를 몹시 무서워하였다.

[서방제국의 굴복]

1 **3** ¶ 그래서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다음과 같은
2 말로 화평을 청하게 하였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왕의 종입니다. 이
3 령계 장군 앞에 엎드렸으니 처분대로 하십시오. ◦우리들이 사는 집과 모든
토지와 밀밭, 양과 소 그리고 모든 축사들은 다 장군의 처분에 맡깁니다.
4 ◦우리들의 도성과 그 주민들도 다 장군의 종들이니 오셔서 좋으실대로
처분하십시오.”

5 ¶ 사신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와서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하자, ◦그는
6 자기 군대를 이끌고 요새도시에 수비병을 배치하고 시민들중에서 뽑아낸
7 사람들을 자기 보충병으로 삼았다. ◦그 곳 주민과 그 주변에 사는 모든
8 사람들은 화환을 쓰고 복치고 춤추면서 그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나
라의 모든 신들을 없애 버리라는 사명을 받고 온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영토를 짓밟고 신들을 모시던 숲을 베어 버린 다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만을 예배하게 하고 언어와 종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9 대왕을 신으로 받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유다의 큰 산악지대 맞은편에
10 있는 도다인 근처 에스드렐론을 향해서 진격하여 ◦게바와 스키토폴리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옹근 한 달을
머물렀다.

[이스라엘의 방비]

4 ¶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 느부갓네살의 총사령관 ¹
인 홀로페르네스가 여러 민족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신전을 무참히
약탈하고 파괴해 버렸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²
홀로페르네스를 눈앞에 보면서 무서워 떨었고, 예루살렘과 그들의 주 하느
님을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들이 포로생활로부터 돌아 온 지도 ³
얼마 되지 않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었으며 더럽혀졌던 성전과 기물과 제단을 깨끗이 한 것도 바로 엿그제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 코나, 벳호론, 벨마인, 예리 ⁴
고 등 여러 지방과 코바, 아이소라, 살렘 계곡으로 사람을 보내어 ◦높은 ⁵
산 꼭대기를 모두 먼저 확보하게 하고 촌락들은 성을 쌓게 하였다. 마침
추수가 끝난 때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로 식량을 마련해 놓으라고 하였다.

¶ 당시 예루살렘의 대사제였던 요야킴은 도다인 근처의 평원을 향 ⁶
하고 있는 에스트렐론의 맞은편에 있는 베헤리아와 베헤마스타임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산간지방에 여러 통로들을 고수하라고 명령 ⁷
하였다. 이 통로들은 유다로 들어 가는 관문으로서 겨우 두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기 때문에 침입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통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사제 요야킴과 이스라엘 모든 ⁸
백성의 원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결정한 명령을 수행하였다.

[기도와 참회]

¶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열렬히 ⁹
애원하였다. ◦그들 자신은 물론 처자, 가축, 동거인, 일꾼, 팔려 온 노예 ¹⁰
까지도 모두 베옷을 몸에 걸쳤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 ¹¹
리지 않고 아이들까지도 성전 앞에 엎드렸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며 주님
앞에 베옷을 펼쳐 깔고 ◦제단 주위를 삼베로 둘러쌌다. 그리고는 마음을 ¹²
합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기 자녀들이 원수들의

밥이 되지않게, 자기의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 가지 않게, 조상이 물려준
 도시들이 파멸되지 않게 그리고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더럽혀지거나
 13 치욕거리가 되거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시고 그들이 괴로와하는 모습을 모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14 성전 앞에서 여러 날 단식을 하였다. ◦대사제 요야킴과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사제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드렸으며 하느님과의 맹약의 표시로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자
 15 유로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머릿수건 위에 재를 뿌리고 주님께
 힘껏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을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애
 원하였다.

[홀로페르네스의 작전 회의]

1 **5** ¶ 아시리아군의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산악지대에 통로를 막을 뿐 아니라 모두 높은 산봉우
 2 리에 성을 쌓고 평지에는 방책을 쳤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영주들과 암몬의 지휘관들과 해안지방의 모든 장관들을
 3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주민 여러분, 산간지대에 사는
 주민에 관해서 좀 알려 주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형편이 어땠소? 그들의 병력은 얼마나 되요? 어떻게 해서 그
 군대가 그렇게 강하고 힘있게 되었소? 그 백성을 다스리고 군을 지휘하는
 4 왕이 누구요? ◦그리고 서방의 주민들 중에 그들만이 나를 거역하고 환영
 하려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 된 셈이요?”
 5 ¶ 그러자 암몬 사람들의 총지휘관 아키오르가 나서서 대답하였다.
 “이 종이 주인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인님이 주둔하고 계시는 이 근방
 산악지대 주민에 관한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6 거짓말이라곤 한 마디도 새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아인의

후에로서, °그들의 조상이 갈대아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가 싫어서 7
 메소포타미아로 옮겨 가서 산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8
 들의 생활 관습을 떠나서, 하늘의 하느님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추방
 되어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가서 그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9
 그들이 머물러 있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가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로 가서 정착하고 금과 은을 많이 가지게 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축을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기근이 가나안 10
 온 땅을 휩쓸었기 때문에 에집트로 내려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가 많아져서 큰 민
 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왕은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하여 그들을 11
 벽돌 굽는중노동을 시키고 비천한 노예로 삼는 등 교묘한 정책을 썼습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게 되었고 12
 하느님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온 에집트 땅을 내려 쳤
 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 쫓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13
 하느님은 홍해 물을 말려서 그들의 가는 길을 터 주고 그들을 °시나이와 14
 카데스바르네아로 가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막의 주민들을 모두 쫓아
 내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정착한 다음 강력하게 된 그들은 헤스본 15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 산악지대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즈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 세겜 16
 사람, 기르갓 사람들을 모두 쫓아 내고 오랫동안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불의를 미워하는 하느님이어서 그들이 하느님에게 17
 죄를 짓지 않는 동안에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하느님 18
 이 정해 준 길에서 벗어났기 때에 여러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로로 잡혀서
 외국으로 끌려 갔으며 그들의 신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들은 적군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느님에게 다시 돌아 왔고 여러 19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으며
 20 아무도 살지 않던 이 산악지대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상전
 되시는 주인님, 만일 이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 하느님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터이니 우리는 그 때를 잘 살폈다가 올라
 21 가서 그들을 쳐부숩시다. ◦그러나 그 백성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다면
 그들의 주님인 하느님이 그들을 잘 지켜 줄 터이니 주인님은 그들을 내버
 려 두십시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22 ¶ 아키오르가 말을 마치자 천막 주위에 둘러 섰던 사람들은 모두
 웅성대기 시작했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지휘관들과 해안지방에 사
 는 사람들과 모압의 주민들은 아키오르를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하면서
 23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쟁을 버터 나갈 만한 힘이 없는 무력한 백성입
 24 니다. ◦자, 그러니 홀로페르네스 각하, 빨리 올라 잡시다. 각하의 대군은
 그들을 휩쓸고 말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대답]

1 6 ¶ 회의장을 둘러 서 있던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가라앉자, 아
 시리아군의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는 여러 나라 사람 앞에서 아
 2 키오르와 암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키오르, 네가 뭔데
 암몬의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느냐? 이
 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가호를 받고 있으니 싸움을 하지 말라고? 느부갓
 네살 외에 또 신이 어디 있단말이냐? 그분이 파견한 군대가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리니, 그들의 하느님이 절대로 그들을 구할
 3 수 없을 것이다. ◦왕의 종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을
 처치하듯이 쉽게 때려 눕힐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기병대를 당해낼 수
 4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태워 버릴 것이고 산들은 온통 그들의 피로
 물들 것이며 평야는 그들의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은 도저히 우리를

당해 널 도리가 없어 전멸할 것이라고 온 땅의 주인이신 느부갓네살왕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 암 5
몬의 품팔이꾼 아키오르야, 내가 오늘 이따위 수작을 했으니 너는 나에게 큰 죄를 범했다. 너는 오늘부터, 내가 에집트에서 도망나온 그 족속에게 원수를 갚는 그 날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때에 내 군대의 6
칼과 내 종들의 창이 네 옆구리를 꿰뚫을 것이다. 내가 개선하고 돌아 올 때에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 가운데에 넘어져 있을 것이다. ◦이제 7
내 종들이 너를 그 산악지대로 데리고 가서 그리로 가는 길목 가까이에 있는 한 도시에 너를 버려 둘 것이다. ◦너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는 연 8
명을 할 것이다. ◦그들의 도시가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네가 품고 9
있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한번 말했으니 내가 한번 말 한 것은 한 마디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아키오르]

¶ 홀로페르네스는 막사에서 시중드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아키오 10
르를 붙잡아서 베툴리아로 끌고 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 주라고 하
였다. ◦그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 밖으로 나가 평야로 끌고 간다 11
다음 평야에서 또 산악지대로 올라 가 베툴리아 바로 밑에 있는 샘터에
이르렀다. ◦산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발견하자 무기를 들고 도성에서 12
나와 산꼭대기로 올라 갔다. 그리고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올라
오는 길목을 막고 그들에게 돌을 내려 던졌다. ◦홀로페르네스의 부하들은 13
산 밑으로 숨어 들어 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거기에 눕혀 놓은 다음 자기
군주에게로 돌아 갔다.

¶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성에서 내려 와 아키오르에게 가까이 결박을 14
풀어 준 다음 베툴리아로 끌고 가서 그 산성의 어른들 앞에 데리고 갔다.
◦그 때의 지도자들은 시므온 지파 미가의 아들 우찌야와 고토니엘의 아들 15
카브리스와 멜키엘의 아들 카루미스였다. ◦그들은 성의 원로들을 모두 16

소집하였다. 젊은이들과 여자들까지도 급히 몰려 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들이 아키오르를 군중 한가운데 세우자, 우찌야가 어떻게 된 일이나고 아키오르에게 물었다. ○아키오르는 홀로페르네스의 전략회의 내용과 자기가 아시리아 지휘관들에게 한 말과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거만하게 지껄여댄 말들을 전해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엎드려서 하느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느님, 저들의 거만한 꼴을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 백성의 처참한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느님께 거룩하게 바친 우리들을 굽어 보소서.” ○그리고 그들은 아키오르를 위로하며 크게 칭찬하였다. ○우찌야는 아키오르를 그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인도한 다음, 원로들을 위해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 밤을 새워가며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베툴리아의 포위]

1 **7** ¶ 그 다음날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전군과 자기 편에 든 모든 사람들에게 베툴리아 쪽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고지로 올라 가는 통로를 장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였다. ○그들의 정예병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날로 진격하였다. 그들의 군세는 보병이 십 칠만, 기병이 만 이천이었고 그 밖에도 군수물자와 걸어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툴리아 근처 골짜기 샘터 있는 곳에 진을 쳤다. 그 진지의 나비는 도다인에서 벨바임까지였고 그 길이는 베툴리아에서 시작하여 에스드렐론 맞은편에 있는 키아몬에 이르렀다. ○이 대군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떨며 서로 말하였다. “저놈들이 이제는 온 땅을 휩쓸어 버리겠구나! 높은 산도 골짜기도 언덕도 그들의 힘을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탑 위에 횃불을 밝히고 그 밤을 새워가며 지키고 있었다.

6 ¶ 이틀째 되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온 기병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7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으로 올라 가는 길들을 살피고 물줄기를 점령하고
 나서 보초병을 세운 다음 진영으로 돌아 왔다. ○에돔 사람들의 영주들과 8
 모압 사람들의 지도자들과 해안지방에서 온 사령관들이 그에게 와서 이
 렇게 말하였다. ○“나리께 빙니다. 당신의 군대가 패배하지 않도록 조심하 9
 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창으로 싸우지 않고 그들이 살고 10
 있는 산의 높은 것을 이용하여 싸웁니다. 그들의 산꼭대기에 올라 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지는 마십시오. 11
 그러면 나리께서는 부하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12
 모든 군대를 진영에 머물러 있게 하여 병력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산 기슭에서 흘러 나오는 물줄기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삽니다.그러니 13
 그들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 마침내 그들의 도성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부하들이 가까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도성에서 한 사람도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들 14
 은 물론, 그들의 처자도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그들에게 가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 죽어 쓰러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당신을 순순히 맞아 들이지 않고 거역한 죄에 대한 15
 호된 벌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들의 말은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참모들의 마음에 들었다 16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17
 암몬군은 아시리아 사람 오천 명과 함께 이동하여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로와 수원지를 점령하였다. ○에돔 사람들과 암몬 18
 사람들은 도다인 맞은편에 있는 고지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들은 자기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남쪽과 동쪽으로 보내어 에그레벨로 향하게 하
 였다. 에그레벨은 모크무르 냇가 쿠스 근처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나머

지 아시리아군은 평원에 진을 치고 온 지면을 뒤덮었는데 그들의 천막과 장비는 수없이 펼쳐져서 그 수량은 굉장하였다.

19 ¶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꺾여서 자기들의 주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든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여 빠져 나갈 길이 없었던 것이
20 다. ◦아시리아군은 보병, 기병, 전차들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워싼 채 삼십 사 일이나 끝었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들의 물독마다
21 물이 떨어지고, ◦저수지는 모두 바닥이 나서, 그들이 마실 물을 제한해 주
22 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물을 실컷 마실 수가 없었다. ◦어린이들은 기력을 잃고 부녀들과 젊은이들은 목말라 지쳐서 도성의 길거리와 성으로 통하는 길에 마구 쓰러졌다.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다.

23 ¶ 그래서 청년들, 부녀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우찌야와 함께 몰려 가서 그 도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원로들에게
24 대들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과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하느님께서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진작 화평을 청하지 않
25 아서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우리를 적군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26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목마르고 지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그들을 불러 들여 온 도성을 그들에게 내어 주시오 그리하여 홀로페
27 르네스의 부하들과 그의 온 군대가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시오. ◦차라리 우리가 그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목숨은 건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것들이 죽는 것과
28 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우리 조상들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29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거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고, 그들은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우찌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30
 “형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닻새만 더 참아 봅시다. 그 동안에 우리
 주 하느님 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닻새가 지나도 우리에게 31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2
 나서 그는 각각 자기 부서로 사람들을 보냈다. 사람들은 도성의 성벽과
 탑으로 돌아 갔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 보냈다. 온
 도성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유딧의 과부생활]

8 ¶ 그 때 므라리의 딸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므라리는 옥스의 1
 아들이고, 옥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오지엘의 아들이고 오지
 엘은 엘키아의 아들이고 엘키아는 아나니아의 아들이고 아나니아는 기드
 온의 아들이고 기드온은 라파임의 아들이고 라파임은 아히툼의 아들이고
 아히툼은 엘리야의 아들이고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이고 힐키야는 엘
 리압의 아들이고 엘리압은 나타나엘의 아들이고 나타나엘은 살라미엘의
 아들이고 살라미엘은 사라사대의 아들이었다. ○유딧의 남편은 같은 부 2
 족이며 같은 가문에 속하는 므나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보리 추수 때
 죽었다. ○므나쎄는 밭에서 보릿단을 묶고 있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을 3
 때에 일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앓다가 자기가 살던 베허리아에서 죽었
 다. 그는 도다인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 4
 후 유딧은 삼 년 사 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로 살았다. ○그 여자는 자기 5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베옷을 입고 과부의 옷차림으로 지냈다. ○유딧은 6
 과부생활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과 그믐날 초하룻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일과 경축일을 제쳐 놓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그 여자는 매력있고 용모가 대단히 아름다웠다. 뿐만 아니라 남편 므나쎄 7
 로부터 금과 은, 남녀 종들 그리고 가축과 토지를 물려받아 그것을 가지고

8 살았다. ○또한 그 여자는 하느님을 무척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9 ¶ 유딧은 사람들이 식수 부족으로 절망하여 자기들의 지도자 우찌야를 원망한다는 말을 들었다. 유딧은 우찌야가 그 도성을 닷새 후에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넘겨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을 다 듣게 되었다. ○그래서 유딧은 자기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여자 하나를 보내어
10 그 도성의 원로,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 오게 하였다. ○그들이 찾아오자 유딧은 이렇게 말하였다. “베툴리아 성민들의 지도자이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께서 우리를 며칠 안으로 도우시지 않는다면 이 도시를 우리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한 말이 옳지 않다는
11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인데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인간이면서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 선 것입니까?
12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지만 결코 아무 것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알아 내거나 그의 생각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우리 하느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마시다.
13 ○비록 하느님께서 꼭 닷새 안으로 우리를 도우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14 원수 앞에서 멸하게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오. 하느님은 사람과는 달리 으르거나 달랜다고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15 도와 줍시라고 그분에게 간청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소리를
16 좋게 생각하신다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 우리 세대에 있어서

는 어느 부족이든지 어느 씨족이든지간에, 또 어느 지방이든지 어느 도시
 든지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칼에 희생되기도 했고 약탈당하기도 했으며 19
 우리 원수들 앞에 무참하게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외에 20
 는 다른 신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종족 가운데 한
 사람도 저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히게 되는 날에는 온 21
 유다 사람들이 붙잡히게 될 것이며 우리 성소는 유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이 신성모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잡혀 가든지 이방인 가운 22
 데 우리 동포들이 학살당하게 되고 우리 강토는 빼앗기고 우리의 유산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잡아 간 사람들에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예생활은 기쁨으로 끝나는 23
 것이 아닙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노예생활을 더욱 수치스럽게 하실
 따름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여 24
 줍시다. 그들의 생명은 물론 성소와 성전과 제단의 안전도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25
 드려야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조상들을 시험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악을 26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
 시오. ◦그들의 충성심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불과 같은 시련을 그들에게 27
 주셨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처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채찍으로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우찌야의 반응]

¶ 그 때 우찌야는 유딧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한 말은 28

모두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반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9 ○당신의 지혜가 오늘 새삼스럽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씨가 곱고 총명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30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며 심지어는 어길 수 없는 맹세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1 ○당신은 경건한 부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 저수지를 가득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 후손대에 길이 남을 만한 한 가지 일을 이루어 놓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 서 있으시오. 그러면 나는 내 여종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성을 원수들에게 내어 주겠다던 그 날짜 안으로 주님께서서는 내 손을 통하여 34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묻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다 끝낼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35 알려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찌야와 다른 지도자들은 유딧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우리 36 원수들을 벌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집에서 나와 각각 자기 부서로 돌아 갔다.

[유딧의 기도]

1 **9** ¶ 유딧은 땅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베옷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에서 저녁 향을 태우고 있었는데, 유딧은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2 “내 조상 시므온의 주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시므온에게 칼을 쥐어 주셔서
이방인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처녀의 치마를 벗겨 욕을 보이고
 아랫도리를 드러나게 하여 모욕을 주고
 태를 범하여 수치를 보게 한 이방인들을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학살당하게 하시고,

3

기만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침대를
 피로 물들이게 하셨으며

노예를 군주와 더불어,
 군주를 옥좌와 더불어 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아내들을 빼앗기게 하시고,

4

그들의 딸들을 포로로 잡혀 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무기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께 대한 열성이 대단하였고,
 그들의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당신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이 과부의 말을 들어 주소서.

그런 일들과,

5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들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 그리고 당신께서 생각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 6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타나서
‘여기 대령했습니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 당신은 가실 길을 모두 미리 마련하셨고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미리 아시고 결정하셨습니다.
- 7 저 아시아 사람들은 병력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말과 기병들을 가지고 우쭐대고 있으며
보병의 위력을 가지고 뽐냅니다.
그리고 방패와 칼과 창과 팔매총을 가지고
자신만만입니다.
- 그러나 그들은
당신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 8 당신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강한 힘을 쳐부수시고
당신의 분노를 일으키시어
그들의 세력을 꺾어 주소서.
- 그들은 당신의 성소를 모독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을 더럽히며
당신 제단에 있는 뿔을 칼로 쳐내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 9 그들의 거만한 자세를 보시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 머리 위에 퍼부어 주소서.
이 과부에게 뜻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간계를 꾸미는 이 입술을 이용하여 10
 원수들을 넘어뜨리소서.
 종들을 그 상전과 함께
 상전을 그 신하와 함께 쓰러지게 하소서.
 그리고 여자의 손을 이용하여
 그들의 콧대를 꺾으소서.
 당신의 위력은 많은 수효에 있지 아니하고 11
 당신의 능력은 힘센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하느님이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희망없는 사람들의 구조자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조상의 하느님이시요 12
 이스라엘을 상속으로 주시는 하느님으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물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왕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원수들을 속여서 타격을 주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구변을 주소서. 13
 그들은, 당신의 계약과
 당신의 성전과
 시온산과, 당신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해치려고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14
 모든 권능과 위력을 가지신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오로지 당신밖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모든 나라와 당신의 모든 족속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홀로페르네스에게로 간 유딧]

- 1 **10** ¶ 유딧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 2 부르짖기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유딧은 일어나 시녀를 불러,
 - 3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내던 그 집으로 함께 내려 갔다. ◦유딧은
 - 4 속에 입었던 베옷을 벗고 과부 옷차림을 벗어 버렸다. 그리고 온 몸을
 - 5 물로 씻고 좋은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그 위에 처네를 쓰고 자기
 - 6 남편 므나שה가 살아 있을 때 입던 화려한 옷을 차려 입었다. ◦신을 신고
 - 7 발목가락지와, 팔찌와 반지를 끼고 귀걸이와 그 밖에 가지고 있는 모든
 - 8 장식을 붙이고 남자들의 눈을 홀릴 만큼 요란하게 꾸몄다. ◦유딧은 하
 - 9 녀에게 포도주가 든 가죽부대와 기름단지를 주었고, 보리볶음과 전과와
 - 10 부정타지 않은 빵을 부대에 넣어 주었으며 자기의 그릇을 싸서 짊어지게
- 6 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성문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원로 카브리스와
- 7 카르미스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우찌야를 만났다. ◦그들은 유딧의 용
- 8 모가 완전히 달라졌고 옷마저 갈아 입은 것을 보았을 때 그 미모에 넋을
- 9 잃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 10 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와 예루살렘의
-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9 ◦유딧은 엎드려서 하느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 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야기
- 한 그 모든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가 부탁한 대로
- 10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성문을 열자 유딧은
- 자기 하녀를 데리고 그 곳을 빠져 나갔다. 그 도성 사람들은 유딧이 산을

내려 가 골짜기를 지나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켜 보았다. ◦유딧과 그의 11
 하녀는 골짜기로 곧장 내려 갔을 때 아시리아 보초병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심문하였다. “당신은 어느 나 12
 라 사람ियो? 어디서 왔소? 어디로 가는 거요?” 그러자 유딧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멸지 않아 당신들
 에게 먹혀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군대의 총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에게로 가서 믿을 13
 만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나는 그가 올라 가 산악지대를 모두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하 가운데 한 사
 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딧의 말을 들으면서 14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유딧의 아름다움에 탄복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재빨리 우리 대장님 편으로 15
 내려 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대장님 천막으로
 가시오.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인도하여 대장님께 맡기겠습
 니다. ◦그분 앞에 나서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다 16
 말하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잘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
 그들 중에서 백 명이 뽑혀 유딧과 그 하녀들을 호송하여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인도하였다. ◦여자가 왔다는 소문이 온 천막에 퍼지자 진영은 18
 떠들썩했다. 보고가 들어 갈 때까지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 밖에 서
 있었는데 그 때 군인들은 모두 몰려 나와 그 여자를 에워쌌다. ◦그들은 19
 유딧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미루어 보아 이스라
 엘 남자들이 얼마나 훌륭할까 하고 생각하며 감탄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여자를 가지고 있는 저 민족을 어떻게 얹잡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 두었다가는 그들이
 온 세상을 속여 먹고 말 것이다.” ◦홀로페르네스를 받드는 보좌관과 그의 20
 시종들이 나와서 유딧을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 갔다. ◦홀로페르네스는 21

진홍포와 금과 에머랄드와 보석으로 장식된 휘장으로 둘러싼 침대 위에
 22 누워 있었다. ◦그는 유딧이 왔다는 전갈을 듣고 은촛대를 앞에 들고 천막
 23 입구로 나갔다.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미모에 깜짝 놀랐다. 유딧은 꿇어 엎드려 홀로페르네스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유딧을 일으켜 세웠다.

[홀로페르네스와의 대면]

1 **11** ¶ 홀로페르네스는 유딧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안심하
 2 시오. 무서워할 것 없소.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느부갓네살왕을
 3 섬기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나는 절대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소. ◦산간
 4 에 사는 당신 동족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는
 5 않았을 것이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소. ◦당신이
 6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도망쳐 왔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살
 7 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안심하십시오.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당신의
 8 생명은 안전하오. ◦아무 데도 당신을 해칠 사람은 없소. 당신은 나의 상전
 이신 느부갓네살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듯이 당신도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여종의 청을
 들어 주시고 이 소녀가 당신 앞에서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장군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함께 이 일들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은 계획하신 일에 하나도 실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시는 느부갓네살왕 만세! 그 크신 능력이
 영속되기 를 빕니다. 그분은 모든 생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당신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인간들만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
 라 들의 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새들까지도 당신의 위력을 통하여 느부갓
 네살왕과 그 집안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직 당신만이 훌륭한

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전술이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키오르가, 당신이 주관하던 회의 때 한 말을 우리는 들었습
 9 니다. 베툴리아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구해 준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그는
 자기가 당신 앞에서 한 모든 말을 베툴리아 사람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전이신 장군님, 그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10
 참말이니 마음 속에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느님께 대해서 죄
 를 짓지 않는 한 벌받거나 칼에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1
 이미 죄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하느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서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12
 들의 가축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올법을 통하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모두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느님 앞에 13
 나가서 봉사하는 예루살렘의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따로
 떼어 두었던 곡식의 만물, 그리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십분의 일세 등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을 먹어 치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툴리아 사람들 14
 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를 보내어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 오라고 했습니다.
 ◦원로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15
 그러면 그들은 그 날로 당신 손에 넘어 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
 여종이 모든 것을 알고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을 당신과 함께 해내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여종은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섬 17
 기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군님, 이제는 내가 18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언제 그들이 죄를 범하는지를 나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 당신에게 알려 드릴 테니 당신은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맞설 사람은 한 사람도

19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라 설 자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아내게 될 것이며 당신 앞에서 감히 개도 짚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 주시려고 말씀하시며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 드리라고 나를 보내 주셨습니다.”

20 ¶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신하들은 유딧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21 그들은 그 여자의 지혜에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여자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말재주가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을 것이다.”
22 ◦홀로페르네스는 유딧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백성들보다 먼저 당신을 보내어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내 주를 업신여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23 주신 하느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요, ◦당신은 용모도 아름답고 말씀씨도 뛰어납니다. 당신의 하느님은 내 하느님이 되고 또 당신은 느부갓네살왕의 궁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될 것이요.”

[홀로페르네스의 연회]

1 **12** ¶ 홀로페르네스는 부하들에게 유딧을 자기의 은그릇들이 놓여
2 저 있는 방 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3 만들어진 요리와 포도주를 그 여자에게 대접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유딧은 이렇게 말하며 사양하였다. “율법을 범하지 않기위하여 나는 그런
4 것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음식을 먹겠습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여자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런 음식을 구해 올 수 있겠소? 여기에는 당신 나라 사람은
5 하나도 없소.”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장군님, 당신이 살아 계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당신 여종이 가져온 식량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나를
통하여 다 이루실 것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시종들은 유딧을 천막 안

으로 인도하였다. 그 여자는 밤이 깊도록 정신없이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홀로페르네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의 장군님, 당신의 여종이 기도하러 6
 밖에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홀 7
 로페르네스는 호위병에게 여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사흘 동안 여자는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밤마다 베툴리아의 산골짜기로
 나가서 진영에 있는 샘물에 몸을 담갔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 와 이스 8
 라엘의 주 하느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갈 길을 열어 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깨끗한 9
 몸으로 돌아 와서 저녁 밥상이 나올 때까지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 나흘째 되던 날 홀로페르네스는 연회를 베풀었는데 가까이 있는 10
 부하들만 청하고 장교들은 하나도 청하지 않았다. ◦홀로페르네스는 자 11
 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내시 바고아에게 말하였다. “네 책임하에 있는
 저 히브리 여자에게 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타일러라. ◦그런 여자와 한번도 놀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 보낸다는 12
 것은 우리의 수치다. 데려 오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여자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바고아는 홀로페르네스 앞을 물러나 유딧이 있는 곳으로 들어 13
 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여쁜 아가씨,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장군님 앞에
 들어 가 장군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시다. 이 날은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시중드는 아시리아의 딸
 처럼 되십시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떻게 감히 장군님의 14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의 눈에만 든다면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15
 령게 말하고 나서 유딧은 일어나 옷을 잘 차려 입고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단장하였다. 그리고 유딧의 하녀는 먼저 나가서 유딧이 식사할 때에 앉을
 수 있도록 폭신한 양가죽을 홀로페르네스 앞에 깔아 놓았다. 그 양가죽은
 바고아가 유딧에게 매일 쓰라고 준 물건이었다. ◦유딧이 들어 가 자리에 16
 앉았다. 그 여자를 보고 홀로페르네스는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동요되어

함께 자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실상 그는 그 여자를 보게 된 첫날
 17 부터 그 여자를 유혹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홀로페르네스는
 그 여자에게, “자, 어서 잔을 드시오. 우리와 함께 즐기시다” 하고 말하였
 18 다. ◦유딧은 “그럼 마시겠습니다. 장군님, 세상에 나온 이후로 오늘이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9 ◦그리고 나서 유딧은 자기 하녀가 준비해 온 음식을 받아, 홀로페르네스
 20 앞에서 먹고 마셨다. ◦홀로페르네스는 그 여자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
 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셨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단
 하루도 그렇게 많이 마셔 본 일이 없었다.

1 **13** ¶ 저녁 때가 되어 그의 종들은 총총히 물러나갔다. 바고아는
 천막을 밖으로 잠가 버리고 시종들을 장군 앞에 얼씬거리지 못
 하게 하였다. 그들은 연회가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모두 지쳐서 제각기
 2 잠자리로 돌아 갔던 것이다. ◦유딧만이 천막 안에 혼자 남아 있었고 홀
 3 로페르네스는 잔뜩 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유딧은 하녀에게
 일러서 침실 밖에 서 있다가 자기가 매일 하던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자기는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
 4 다. 또 바고아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해 두었다. ◦모든 사람이 물러가고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침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유딧은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예루살렘을
 5 높이기 위하여 제 손으로 하려는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유산을 확보할 때이며 우리에게 대들던 원수들을 쳐부수려는 저의
 6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맡에 있는 침대
 7 기둥 쪽으로 가서 거기 걸려 있는 그의 칼을 집어 내렸다. ◦그리고 침대
 로 다가 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털을 움켜 잡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8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9 홀로페르네스의 목덜미를 두 번 내리쳐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렸다. ◦그
 리고 나서 그의 몸을 침대에서 굴러 내리고 기둥으로부터 휘장을 걷어서

치워 버렸다. 잠시 후에 유딧은 밖으로 나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하녀에게 주었다. ○하녀는 그것을 곡식자루 속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두 10
 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진영을 빠져
 나와 거기 있는 계곡을 돌아 베툴리아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베툴리아의
 성문에 이르렀다. ○유딧은 멀리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11
 “열어 주시오. 성문 좀 열어 주시오.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 주신 것처럼 힘과 그리고 또 원수를 누르는
 권능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12
 목소리를 듣고 성문으로 서둘러 내려 갔다. 그리고 도성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유딧이 돌아 왔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13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달려 왔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유딧과
 그의 하녀를 맞아 들였다. 그리고 불을 피워 밝게 한 다음 그 여자들을 둘러
 쌌다. ○유딧은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시오. 찬 14
 양하고 또 찬양하시오. 이스라엘 집안에서 자비의 손길을 떼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쳐부수셨습니다.” ○유딧 15
 은 자루에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 보시오. 아시리아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휘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홀로페르네스가 잔
 떡 취해 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자의 손을 통하여 그를
 치셨습니다. ○내 길을 걸어 갈 때 나를 지켜 주신 주님 만세! 내 얼굴이 16
 그를 유혹하여 그를 죽게 했을 망정 그는 나를 범하여 더럽히거나 욕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단히 놀라서 꿇어 엎드려 하느님을 17
 경배하며 소리를 합하여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원수들을 없애 버
 리신 우리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그러자 우찌야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18
 “당신은 이 세상 어느 여자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 복받은
 여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 원수의 대장의 목을 자르게 해

- 19 주신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이 희망하던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하느님의 강한 힘을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 20 ◦당신은 우리 민족이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않고 도리어 우리 하느님 앞에서 곧바로 걸어 감으로써 우리들에게 닥쳐 온 재난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은 당신의 성취한 일들을, 하느님께서 길이 높이시고 좋은 상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유다 군이 아시리아 진영을 공격하다]

- 1 **14** ¶ 유딧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 말대로 하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당신들의 망대 위에 걸어 놓으십시오. ◦날이 밝아 땅 위에 해가 솟아 오르게 되면 당신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힘센 사람은 모두 도성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지휘관을 앞세워 아시리아군의 초소로 향하여 평야로 내려 가는 체하십시오. 그러나
- 2 당신들은 그리로 내려 가지 마십시오. ◦아시리아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진영으로 서둘러 돌아가서 그들의 군대 참모들을 깨울 것입니다. 참모들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달려 가겠지요. 그러나 그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겁을 집어 먹고 당신들 앞에서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 3 ◦당신들은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 달아나는 그들을 쳐죽이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암몬 사람 아키오르를 나에게로 불러다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이십시오. 와서 보고 그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우리에게로 보냈던 홀로페르네스임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우찌야의 집에서 불러 내었다. 그는 나와서 거기 모여 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들고 있던
- 4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보고 그만 기절해 넘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유딧의 발밑에 엎드려 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다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그 밖의 모든 나라들은 당신을 찬양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요사이 당신이 하신 모든 8
 일들을 지금 나에게 들려 주십시오.” 그래서 유딧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떠나던 날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 때까지 자기가 한 9
 모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유딧이 이야기를 마치자 사람들은 9
 큰 소리를 지르고 온 도성에는 환성이 울려 퍼졌다. ○아키오르는 그 자 10
 리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동틀 무렵에 사람들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망대 위에 걸어 놓았다. 11
 사람들은 모두 각각 자기 무기를 들고 떼를 지어 산길로 나섰다. ○아시리아 12
 사람들은 상관에게 전령을 보냈고 또 직속상관들은 고급장교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고급장교들은 자기들의 모든 지휘관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그 13
 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 노예들이 전멸을 당하려고 감히 우리에게로 내려와 싸움을 겁니다.”
 ○바고아는 천막문을 두드렸다. 그는 홀로페르네스가 유딧과 함께 자고 14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무 대답도 들려 오지 않아 문을 밀고 침실로 15
 들어 가 보니 홀로페르네스는 머리가 달아난 채로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바고아는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울고불고 통곡하였다. 그 16
 리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딧이 머물러 있는 천막으로 17
 들어 가 보았다. 그러나 여자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로 달려
 나와 부르짖었다. ○“저 노예들이 우리를 속였다. 히브리 여자 단 한 사 18
 람이 느부갓네살 왕국에 욕을 보였다. 자, 보아라. 홀로페르네스가 땅에
 쓰러져 있고 그의 목은 달아났다.” ○아시리아군의 지휘관들은 이 말을 19
 듣고 크게 당황하여 옷을 찢었다. 그들의 진영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15 ¶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1
 겁에 질려 떨며 자기 동료들 떠나 일제히 흩어져 산길과 들길로 2
 달치는 대로 달아났다. ○베툴리아를 둘러싼 산지에 진을 치고 있던 사 3

- 람들도 달아났다. 그 때에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 4 ◦우찌야는 베트마스타임, 베배, 코바, 콜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알리게 하고 적군을 추격하여 없애
- 5 버리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일제히 적군에게 달려들어 코바까지 그들을 쫓아 가 쳐죽였다. 예루살렘과 온 산악지대의 사람들도 적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공격에 가담하였다. 또 길르앗과 갈릴래아에 사는 사람들도 다마스커스까지 따라 가서
- 6 적군을 측면으로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베툴리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은 아시리아 진지로 뛰어 들어 가 재물을 빼앗아 큰 부자가 되었다.
- 7 ◦적군을 학살하고 돌아 오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남아 있는 전리품을 차지하였고 산과 평야의 여러 마을 주민들도 많은 전리품을 손에 넣었다. 거기에는 물건이 많이 있었다.
- 8 ¶ 대사제 요야킴과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주민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일을 똑똑히 보고 유딧을 만나 축하하려고 왔다.
- 9 ◦그들은 모두 찾아 와서 입을 모아 유딧을 축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
- 10 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예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을 당신 손으로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 11 받기를 빕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십 일 동안 적군의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가 쓰고 있던 천막과 모든 은불이와 침상과 그릇과 가구를 유딧에게 주었다. 유딧은 그것을 받아 자기의 나귀에도 실었고 마차를 준비하여 그
- 12 위에도 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은 유딧을 보려고 달려 와서 그 여자를 찬양하였다. 그들 중 몇은 춤과 노래로 유딧을 축하하였다. 유딧은 나뭇가지를 집어다가 자기와 함께 있던 여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 13 ◦유딧과 다른 여자들은 올리브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리고 춤을 출 때에 유딧은 여자들을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앞장을 섰다. 한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갑옷을 입고 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뒤따랐다.

¶ 그 때에 유딧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14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합창하였다.

16 “북을 치며 우리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1
징을 치며 주님을 노래합시다.

시와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크게 불러 뵙시다.

주님은 전쟁을 쳐부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2

이 몸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마련하신 당신의 진영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사람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산으로부터 내려 3
왔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그 기병대는 모든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불을 지르고 4

우리 청년들을 칼로 찌르고

젖먹이들을 땅에 내던지고

어린이들을 붙잡아 가고

처녀들을 납치해 가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5

여성의 손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일 강한 용사를 6

젊은이들이 쓰러뜨린 것도 아니요,

거인들이 때려 눕힌 것도 아니요,

키 큰 장수들이 눌러 버린 것도 아니요,

- 므라리의 딸 유딧이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로
꼼짝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 7 유딧은 과부의 상복을 벗어 버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올렸습니다.
- 8 유딧은 향유를 얼굴에 바르고
처네로 머리를 꾸미고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그를 속였습니다.
- 9 유딧의 신이 그의 눈을 낚아 채고
유딧의 아름다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칼이 그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 10 페르샤인들은 유딧의 과감한 행동에 소스라치고
메대인들은 유딧의 용기에 떨었습니다.
- 11 그 때 멸시받던 내 백성이 고함을 치고
연약하던 내 백성이 큰 소리를 지르니
원수들은 겁을 먹고 질려 버렸습니다.
내 백성이 더 크게 외치니
원수들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 12 종의 자식들도 그들을 무찌르고
달아나는 종을 다루듯이 상처를 입혔습니다.
원수들은 우리 주님의 군대에게 전멸되었습니다.
- 13 나는 내 하느님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힘은 참으로 놀라우시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14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말씀으로 생겨 났습니다.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만물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사옵니다.

산과 물이 밑바닥부터 온통 뒤흔들릴 것이며 15

바위가 당신 앞에서 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웁니다.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제사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16

더구나 주님께 드리는 기름진 제물도

아무 가치가 없사옵니다.

다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언제나 위대합니다.

우리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는 17

나라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을 벌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불과 구더기에게

내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통곡할 것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돌아 와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정결 18

예식을 끝낸 다음 번제물과 자유로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드렸다. 유딧 19

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홀로페르네스의 소유물을 모두 하느님께 바쳤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홀로페르네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휘장을 하느님께

- 20 기념품으로 바쳤다. ○사람들은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축제를
 21 벌였고 유딧도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축제가 끝난 다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 갔다. 유딧은 베툴리아로 돌아 와 자기 재산을
 22 가지고 살았다. 유딧은 그의 당대에 온 세상에 유명하여졌다. ○자기를
 탐내는 남자가 많았지만 그 여자는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았다. 므나쎄
 가 죽어서 조상들 옆에 묻힐 때부터 일생 동안 줄곧 혼자 살았던 것이다.
 23 ○그 여자는 더욱더 유명해졌고 자기 남편의 집에서 백 오 세까지 살았다.
 유딧은 여종에게 자유를 주고 베툴리아에서 죽었는데 남편 므나쎄의 무
 24덤에 합장되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렛동안 애도하였다. 유딧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남편 므나쎄의 식구들과 친정식구들에게 나누어
 25 주었다. ○유딧이 살아 있을 때는 물론 그 여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없었다.



그림 6: Judith Slaying Holofernes. Artemisia Gentileschi (1613 ca.)